

아동이 행복한 군산시 건설 시동

지방정부협 44개 지자체 회원 임시총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가속도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 중인 전국 지방정부협의회가 6일 군산 GSCO(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를 찾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하고 군산시 주관으로 진행하며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44개 지자체 단체가 참여한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2017년 9월 14일부터 1년간 지방정부 협의회를 이끌어 갈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방정부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아동친화도시 포럼을 통해 44개 지방자치단체 200명의 아동·청소년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맘껏, 아동 권리와 공공공간'이라는 주제로 서울어린이대공원의 '맘껏 놀이터' 조성 사업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군산시가 공동 추진 예정인 '군산시 맘껏 아동권리광장(가칭) 조성 사업'에 대한 서울시립대학교 김아연 교수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

되었으며, 전주시와 서울 종로구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동신 시장은 "지역과 국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44개 회원도시 관계자들 모두 힘내자"고 격려하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교육권과 동등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고 어린이가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단속에도 '아랑곳' ... 안전불감증 여전

군산항 주말 낚시객 3000명 몰려... 위험천만 해경, 안전사고 주의 당부

군산으로 불리는 주꾸미 낚시에 해경이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주꾸미 낚시를 위해 바다로 나가는 낚시객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항로상 낚시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군산 앞바다에 성어가 된 주꾸미가 몰리면서 평일 130척의 낚시어선이 승객 2,200명을 싣고 바다로 나가고 있으며 주말이면 180척 3,000명이 군산항 남·북방파제로 몰리고 있다.

더욱이 어려운 구역 등 관련법규를 잘 모르는 레저보트까지 합세하면서 좁은 수역에 주꾸미 잡이로 장사진을 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의 안전조업 계도에도 불구하고 항로에서 버젓이 낚시하는 위험천만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실제 4일 오후 3시30분께 군산항 남방파제 북쪽 해상(선박 통·항로) 4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해경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주꾸미를 잡다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됐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37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동쪽 180m 해상에서 승객 8명을 태운 9.7급 낚시어선이 원인미상으로 침수돼 승객이 모두 출동한 경비함에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은 본격적인 주꾸미 잡이가 입수될 때를 대비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로상 조업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해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양성환 경비정장은 "국민의 여가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현장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며 "항로상 낚시금지, 구명조끼 착용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군산 앞바다에 성어가 된 주꾸미가 몰리면서 평일 130척의 낚시어선이 승객 2,200명을 싣고 바다로 나가고 있다.

방파제 북쪽 해상(선박 통·항로) 4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해경의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주꾸미를 잡다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단속됐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37분께 군산시 십이동파도 동쪽 180m 해상에서 승객 8명을 태운 9.7급 낚시어선이 원인미상으로 침수돼 승객이 모두 출동한 경비함에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은 본격적인 주꾸미 잡이가 입수될 때를 대비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로상 조업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해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양성환 경비정장은 "국민의 여가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현장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며 "항로상 낚시금지, 구명조끼 착용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해경은 본격적인 주꾸미 잡이가 입수될 때를 대비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로상 조업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해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수문을 타고 더욱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로상 조업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해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양성환 경비정장은 "국민의 여가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현장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며 "항로상 낚시금지, 구명조끼 착용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해경은 본격적인 주꾸미 잡이가 입수될 때를 대비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로상 조업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해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양성환 경비정장은 "국민의 여가활동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면 현장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며 "항로상 낚시금지, 구명조끼 착용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해경은 본격적인 주꾸미 잡이가 입수될 때를 대비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항로상 조업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위해 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우수제품 장터 열렸네

10일 익산 어양공원서 50여가지 전시·판매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어양공원에서 오는 9월 10일 전북도 마을기업의 우수제품을 모아 판매·전시하는 '마을기업 작은장터'가 열렸다.

익산시 마을기업협의회가 주관하고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라북도 마을기업 20여 업체가 참여하여 생활용품부터 가공식품, 농특산물, 전통차까지 50여 가지의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특히 바비큐 구매금액의 60%를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고 행운권을 발급하는 사전 예약 이벤트와 5만원이상 구매 고객에게 시은품을 증정하는 나눔 행사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익산시 마을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전라북도 각 지역에 숨어있는 건강하고 정직한 제품들을 많은 시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행사를 넘어 지역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좋은 제품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사회복지대회 개최

익산시(시장 정현율)에서는 6일 오후 CGV에서 제18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한 '2017 익산시 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됐다.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성배)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정현율 시장, 소방총장 익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 및 공무원 등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의 곳곳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복지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유공자 32명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1부는 개회식,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축사, 축하영상 상영 순으로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힐링할 수 있는 영화관람 시간이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용안면에 소재한 (주)싱그린FS는 '푸른 익산 만들기 사업'을 위해 씨달리며 소나무 7본을 기탁했다.

군산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군산시는 2017년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9월 2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90%)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이번 대상 품목은 노지 채소 중 '가을무, 가을배추'이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군산시 원형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1,000㎡~10,000㎡의 경작 규모인 농업인이 다.

사업 신청은 신청 농가가 계통출하 출하계약서를 작성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판관 기자

싱그린FC, 푸른익산 만들기 동참

수목 7본 1500만원 상당 기탁

익산시 용안면에 소재한 (주)싱그린FS(대표 이주세)는 '푸른 익산 만들기 사업'을 위해 씨달리며 소나무 7본(35년생, 시가 1,5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6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정현율 시장을 비롯한 이주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이 열렸다. (주)싱그린FS 이주세 대표는 "익산시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수목을 기탁하게 되었다"며 많은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로 푸른 익산만들기 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가을독서 매력에 퐁당

군산시도서관 9월 행사 다채

군산시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이 함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연, 강연,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도서관별로 마련했다.

군산시도서관에서는 ▲16일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오보제 인형극 '신문공주' ▲20일 김탁환 작가 초청강연 '쓴다는 것, 산다는 것' ▲27일 체험활동 '뚝뚝뚝 공예교실' ▲28일

자녀교육 강연 '행복한 아이를 공부의 신으로 만든 비법'을 진행한다.

늘푸른도서관에서는 ▲9일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유아 책 놀이 활동' ▲16일 최은옥 동화작가와의 만남 '책 읽는 강아지 똥똥' ▲23일 어린이 인형극 '양치기 소년 시로' ▲27일 체험활동 '오토마타 만들기'를 준비했다.

설립도서관은 ▲23일 북아트 '내교야! 아이스크림책 만들기', '덩더꿍 꽃송이 만들기' ▲30일 유진 동화작가와의 만남 '드로잉 탐정단과 함께하는 드로잉 놀이'를 선보인다. 정준기 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산 시민들이 책 읽기의 기쁨을 느끼고 책과 도서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그 외에 공통 프로그램으로 과일요즘 잡지 무료배부, 연체자 구제, 도서대출 두 배, 추천도서 목록 제공 등이 진행되고 도서관별 자세한 일정은 도서관 홈페이지(lib.gunsan.gov.kr)나 시립도서관(☎ 454-5632), 늘푸른도서관(☎ 454-5982), 설립도서관(☎ 454-5702) 등 각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관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